



회원사 소식

대웅제약, 2008년 상반기 CP 순회교육 실시

자체 발행한 CP 가이드라인을 교재로 활용



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은 'Fair-Trade Action'이라는 주제 하에 전사적인 공정거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케팅 부서를 시작으로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 지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웅제약에서 지난 17일 자체 발행한 CP 가이드라인 교재를 활용해 교육한다는 점과 외부강사가 아닌 사내 전담부서에서 10개 제약사 심결자료 사례를 직접 교육한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대웅제약 자율준수관리자 이호경 상무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 및 관련부서에서 CP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공정거래를 업무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풍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자율준수관리자로 김성도 이사 임명

양질의 우수의약품 생산 공급에 정진하고 있는 신풍제약(대표 장현택)이 투명경영 활동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과 행동규범으로, 신풍제약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도 이사가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됐다.

신풍제약은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준수조직 운영과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범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직원과 조직에 대해 CP를 기준으로 징계하는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 포스코, CP 협의회·실천리더 워크숍 개최



포스코(회장 이구택)는 4월 22일 '2008년 제1회 자율준수 협의회와 공정거래 실천리더 워크숍'을 포스코센터와 덕산 스파캐슬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자율준수협의회 및 워크숍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실천리더의 개선 의견 청취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내실화하고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반기 1회 개최되는 이번 자율준수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동향 및 CP 운영 계획 등에 대한 감사실의 안내를 비롯해 자재구매실의 자율점검 활동 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참석한 위원들은 자율준수문화 내실화를 위한 부서별 교육과 공정거래 실천리더 운영 및 자율점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인 강창균 상무는 "회사의 공정 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법위반 리스크(Risk)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소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들의 관심 표명을 통한 인식도 제고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서장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한편 회사 내에서 공정거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정거래 실천리더 워크숍'에서는 공정위 전문가를 초청, 공정거래법 조사과정의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석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정거래 실천리더 임명장 수여와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제도 및 공정거래 정책 동향 등에 대한 공정거래지원팀의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울러 참석자들 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포스코는 향후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협의회 및 실천리더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개선사항 및 VOC(Voice Of the Customer)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유관부서 공동으로 CP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준수 실행 네트워크 공동 운영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하이트-진로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하이트홀딩스(지주회사)와 하이트맥주(사업회사)로 분할

하이트-진로그룹은 오는 7월 1일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이트맥주는 지난 4월 16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를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가칭)'와 사업자회사인 '하이트맥주(가칭)'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맥주는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분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와 같이 공시했다.

분할은 사업자회사인 '하이트맥주'를 신설하고, 기존 하이트맥주를 하이트홀딩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비율은 하이트홀딩스 55.8%, 하이트맥주 44.2%로 결정됐다. 따라서 하이트맥주(주)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하이트홀딩스 주식 0.558주와 하이트맥주 주식 0.442주를 받게 된다.

자산도 나뉜다. 주류사업부문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설되는 하이트맥주로 넘어가고, 하이트홀딩스에는 진로를 포함한 계열사의 지분이 남게 된다.

또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후에도 양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하이트맥주 김지현 사장은 "분할 후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 전담하게 되고, 사업회사는 그동안 자회사에 대한 투자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대한 경쟁력과 집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맥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해 5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트맥주는 주류도매사 등 협력업체들의 경영효율화를 돕기 위해 새로운 경영지원시스템을 개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파트너관계관리(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경영정보시스템은 협력업체들이 기존에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곧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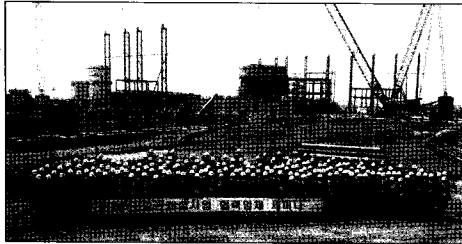
이 시스템은 주류 도매사의 경영관리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있다. ERP와 PRM시스템의 창구역할을 하는 포털을 통해 업계소식 등 다양한 시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매출, 재고관리, 재무관리 등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도 제공한다. 특히, 주요 경영정보는 그래픽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트맥주는 지난해 하반기 이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했고, 최근 전국 주요 도매사에 대한 현장 테스트를 마쳤다.

또한, 5월부터 신청 도매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 현대제철, 일관제철사업 협력업체 초청 세미나 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납기 및 품질 준수 등 결의



현대제철은 4월 11일 경기도 화성 소재 롤링힐스에서 일관제철소 건설 관련 직발주 협력업체 113개사를 비롯해 엠코 협력업체 40개사, 로템 협력업체 27개사 등 총 180개사 협력업체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실시하고, 일관제철사업 성공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일관제철소 건설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투자(5.24조원)가 이루어지는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는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설비의 품질과 성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로”라며 “납기일정에 맞춰 품질과 성능면에서 경쟁력 있는 설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업무진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며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시행계획’, ‘협력업체 업무 프로세스 및 윤리경영의 실천’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가톨릭대 경영학과 곽만순 교수로부터 ‘한국 철강산업에서 현대제철의 역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곽 교수는 강의를 통해 “현대제철은 고로 대형화와 고부가가치 강종의 집중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형 고로의 수명은 초정밀 시공능력이 결정지며 공사기간의 단축이 제철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참석자들은 ‘일관제철사업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진행, 철저한 납기 준수, 신의와 성실로 공동목표 정진 등의 4개항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오찬을 마치고 당진공장 일관제철소 건설현장으로 이동, 1시간에 걸쳐 현장을 견학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LG디스플레이,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100억 원 규모 상생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저리 대출로 협력회사에 실질적 지원



LG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는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들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약속하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4월 25일 구미 LG 비산복지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G디스플레이의 30여개 협력사 대표들과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기업협력 국장, LG디스플레이 CPO(Chief Production Officer, 생산 부문최고책임자) 김종식 부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작년 5월부터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온 것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 대중소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정위가 마련한 ▶ 계약 체결 ▶ 선정·운용 ▶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을 모두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 셈이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및 네트워크론 조성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거래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결제일을 단축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력회사의 6시그마 활동 지원, 협력업체 임직원을 위한 LCD공정 및 품질교육 등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지원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하도급 거래에 관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CPO 김종식 부사장은 "LG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협력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 LCD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을 전담하는 상생협력팀을 신설하고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총 70여건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으며,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업체 최초로 부품 및 재료 단가를 인상하는 등 상생경영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 SK케미칼, 제3회 공정거래 담당자 워크숍 개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강의와 영업비밀 관리 방안 토의

SK케미칼대표 김창근은 4월 24일 제3회 공정거래 담당자 워크숍을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SK케미칼의 공정거래 담당자 워크숍은 지난 200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후, 매년 1회씩 개최되어 3회째를 맞이한 것.

이날 워크숍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비롯해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팀과 각 사업부서의 공정거래담당자 등 총 15명이 참석, 공정거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워크숍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요와 관련 사례에 대해 법무팀 공정거래 담당자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 보호의 개념과 제도 및 침해 유형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성과 영업비밀 관리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필요한 상업신용보험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김종찬 과장의 초청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상업보증보험이란 물품구매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SK케미칼 담당자는 현재 1년 1회 실시하고 있는 공정거래 담당자 워크숍을, 향후 반기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만족과 공정경쟁은 'Max', CP는 'Smooth & Special' 하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느라 꺾기에 감기는 봄의 살가운 바람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하이트맥주(주).

한국 맥주계의 대표기업이자 주류업계 최초의 '1조 클럽' 가입에 한발 다가선 하이트맥주(대표 김지현)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공정한 경쟁에 앞장서는 한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위상 정립에도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그 소기의 성과를 지난 4월 1일 있었던 '제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받아 안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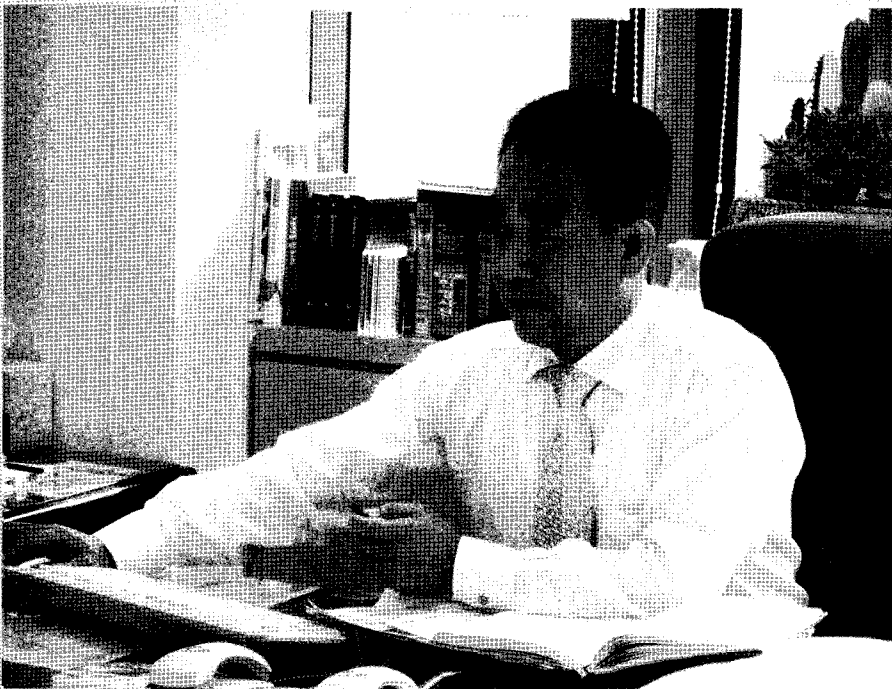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모범적으로 설계·운영한 하이트맥주의 자율준수관리자

이인우 상무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인우 상무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최고를 지향하며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하이트맥주 365일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하이트맥주의 CP 운영 현황과 더불어 향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들의 열의를 가늠해본다.



하이트맥주(주) 자율준수관리자 이인우 상무

Q. 지난 4월 개최된 '제7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시 행사 진행상 수상 소감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A. 먼저 회사를 대표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은 큰 영광일 뿐더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CP 역사가 짧은 하이트맥주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서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많은 자율준수관리자 분들을 대표해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CP에 동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효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Q. 지난 해 9,62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주류업계 최초의 '1조 클럽' 가입에 한발 다가선 하이트맥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 최초의 맥주회사인 '조선맥주주식회사'는 1933년 창립됐습니다. 조선맥주주식회사는 하이트맥주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 사용했던 회사명입니다. 한때 시장점유율이 30%대까지 하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당시 보수적인 기업스타일에서 벗어나 '고객 제일주의 경영'을 제창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많은 연구·개발과 브랜드 전략을 통해 탄생한 것이 '100% 암반천연수로 만들어진 하이트'입니다. 신제품 하이트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으로 하이트맥주는 하이트 출시 3년만인 1996년 업계 1위에 올라섰고, 1999년에는 시장점유율 50%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단일 브랜드로서 9년 만에 100억병 판매를 돌파하는 등 시장점유율 60%로 10여 년간 업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대한민국 대표맥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혀가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의 성공은 맥주의 살아있는 맛을 찾아낸 제품력과 기업의 이익을 고

객들에게 환원하고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고객 제일주의의 경영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9,629억 원으로 매출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5년 '아시아 최고 주류생활문화기업'이 되는 것이 하이트맥주의 목표입니다. 현재 하이트맥주는 모기업인 하이트맥주를 정점으로 주류와 먹는샘물, 포장재, 레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합생활문화기업'을 목표로 전사적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고객의 요구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먼저 변신할 것입니다.

Q. 10여 년간 부동의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하이트맥주가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CP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하이트맥주는 주류업계 선도 기업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내실 있는 성장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2006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CP 도입을 결의한 후, CP의 핵심 7대 요소를 준수하면서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의지와 임직원들의 실천과 참여를 당부하는 대표이사의 선언서를 회사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행동강령 및 서약서를 배포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처와 경쟁사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회사의 CP 도입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처에는 전화기용 스티커도 별도로 제작, 배포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율준수편람은 주류업계 현실에 적합하게 제작해 유형별 위법성 판단 기준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했고, 분야별 체크포인트를 수록

해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반사례를 인지했을 경우,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회사 인트라넷에 자율준수편람을 등록해 임직원의 상시 검색과 출력이 가능케 했으며,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사례와 동향 자료를 업데이트해 임직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는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일상감시시스템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점검도 실시해 범위만 행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팀에 의뢰해 전국 영업지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그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점검 및 직원 면담, 내외부 상담? 신고내용 확인,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점검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법을 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P 전담부서는 전사 업무 분석 및 주요 리스크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위반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상당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CP를 운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이트맥주의 CP가 식음료업계나 여타 기업의 CP와 차별화됐거나 특화시킨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A. 하이트맥주가 운영하고 있는 CP 조직은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자율준수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 전체적인 CP 운영을 총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특별히 범위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책임자 4명을 자율준수책임관리자로, 그 이하 파트장 6명을 자율준수담당자로 선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CP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준수담당자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현업부서 차원의 CP 운용 평가와 개선안을 마련하여 CP가 능동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는 교육부문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의 정기교육 이외에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위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을 주기적으로 외부전문교육에 참가시키는 지정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직원 연수 뿐만 아니라 각종 사내 집합교육 시에도 CP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첫 시간에 CP교육을 편성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 종료 후 테스트를 통한 평가를 병행해 교육대상자의 참여도와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교육 결과를 최고경영층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CP의 근착을 위해 특별히 도입한 제도는 유관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불공정방지협의회입니다. 당사의 자율준수관리자가 간사로 참여하는 불공정방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회의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 되어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인트라넷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이나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토의를 거쳐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당사의 분기별 CP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Q. CP를 도입·운영하면서 하이트맥주의 변화된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A. 하이트맥주는 CP를 단순한 위험 회피 차원이 아닌 실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방지협의회를 통해 CP가 내부적 관리시스템을 탈피해 시장과 상호작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준수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회의내용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스템적인 문제점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Q. 흔히들 “이론과 실재는 다르다”고 합니다. CP를 운영하면서 실제 사업현장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괴리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해 나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을 텐데요.

A. 과거 하이트맥주와 관련해 발생했던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점검해 보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자위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CP를 도입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사를 포함한 관련 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이 아직까지 공정거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신의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불안감과 치열한 목전의 현실 앞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CP를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여타 경쟁사들에 대한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일정기간 심층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Q.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하이트맥주가 표방하는 ‘투명경영’에 있어서 CP가 차지하는 의미와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요?

A. 하이트맥주의 윤리경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경영정신’을 의미하고 있으며, ‘윤리’를 경영활동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윤리경영을 전사적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사내 업무를 표준화·제도화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차원의 내부 통제, 인사제도와 연계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적 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적 리스크(Risk) 통제 활동의 일환으로 내부회계통제시스템과 CP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이 실현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 대통령표창 수상을 통해 하이트맥주의 충실한 CP 운영 성과가 대내외에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향후 CP 운영 기조나 과제는 무엇입니까?

향후 하이트맥주가 CP를 운영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CP가 조금 더 세부단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점별 CP 요원을 양성해 지점 차원에서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개개인이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자기인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속 계열사들에 CP를 전파하고 확대 운영함으로써 하이트-진로그룹이 글로벌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준수하는 아시아 최고 주류생활문화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Q. 일반 대중들도 주류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식음료, 특히 주류업계에서 CP 도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A. 식음료산업의 경우 국민건강과 보건의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 때문에 기업 역량이 분산되고, 제품의 안전과 위생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공정하고 품질 위주의 건전한 경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음료업계의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FTA 등 무역장벽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CP 도입은 생존의 문제이며, 자율준수문화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형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이트맥주는 하이트 출시 15주년을 맞아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업그레이드된 제품 콘셉트를 ‘Clean, Crisp and Fresh’로 정했다고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려는 업계 1위로서의 더욱 깨끗한 경쟁 마인드와 보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하이트맥주의 내일을 기약하며 건배!